

봄은 언젠가 오지만...



박봉식
건설경제 정경팀장

이맘때 단골로 등장했던 한시 구절 가운데 시나브로 사라진 것이 있다. 봄은 왔지만 봄 같지가 않다는 의미의 '춘래불사춘(春來不似春)'이다. 절기상으로는 봄이지만 추위가 가시지 않을 때 쓰였다. 올해는 지난 겨울이 예년에 비해 춥지도 않았거니와 꽃샘 추위에도 밀리지 않았다. 나뭇가지엔 하루가 다르게 연두 빛이 감돌고 땅에는 아지랑이가 피어오른다. 얼었던 땅이 풀리면서 농부들의 손길도 분주해진다. 논밭에 뿌릴 씨앗을 준비하고 물꼬를 손질한다. 부지깽이를 꽃아도 싹이 돋는 시기다. 희망을 심는 때이다.

봄을 느끼지 못하는 곳도 있다. 설비를 포함한 건설업계다. 경기 침체의 한파가 이어지며 움츠린 어깨를 좀처럼 펴지 못하고 있다. 건설산업에는 아직 춘래불사춘이 유효한 셈이다. 현장산업인 건설의 봄은 다른 산업과 의미가 다르다. 동절기 멈췄던 현장을 정비하고 본격적인 공사 준비를 하는 때이다. 덥지도 춥지도 않은 만큼 공정도 쑥쑥 올라간다. 태동하는 시기다. 모태 안

에서 아기가 움직이는 것과 같이 산업이 깨어나는 계절인 것이다. 그러나 건설은 아직 겨울왕국이다. 희망가조차 들리지 않는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봄같지 않은 봄이 7년째 이어지고 있다. 건설산업에도 봄이 있었는지조차 의심이 들 정도로 기억이 가물기물하다. 몇 년 전만 해도 이맘때면 내심 기대도 가졌다. “고마해라, 마이 묵었다 아이가”라는 영화 대사도 스쳐갔다. 경기곡선이 바닥을 찍고 고개 들 때도 뻤다는 생각에서다. 해가 바뀔수록 기대는 실망으로 바뀌었다. 무게도 무거워졌다. 침체기가 너무 긴 탓일까. 주변 사람들이 지나가는 말로 한마디씩 던진다. “요즘 건설업계가 많이 어렵다며?” “건설이 잘돼야 경기가 살아날 텐데” 그러나 눈빛은 공감이라 동정에 가깝다. 공감하지 않는 동정은 상대를 더 비참하게 할 뿐이다. 행여 정부가 이제는 대책은 세워주겠지 하는 생각은 애시당초 버려야한다는 말이다.

전문가들은 국내 건설시장이 구조적인 전환기

“ 설비건설인들은 하루하루가 버겁다. 썩은 동아줄이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다. 이럴 때일수록 냉정해야 한다. 고객의 선택을 받지 못한 이유는 무엇인지, 내부 시스템은 생존에 적합한지에 대해 꼼꼼히 챙겨야 한다. 무엇보다 새로운 트렌드를 놓치고 있거나 않은지에 대해서도 점점해야 한다. 겨울은 쉬는 시간이 아니라 치열한 삶의 연장선이다. 봄은 준비하는 자만이 누릴 수 있는 축복이다. ”

를 지나고 있다고 진단한다. 성장기를 지나 성숙기에 접어들어 과거와 같은 호황은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한다. 여기에 고령화가 급속하게 진행되고 주택에 대한 인식도 바뀌는 등 건설을 둘러싼 환경이 판이하게 달라졌다. 글로벌 금융위기가 변화의 획을 그었을 뿐, 지금의 경기 침체는 과거의 일시적인 파도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해는 가지만 수긍하고 싶지는 않다. 그러나 어찌랴. 지금은 현실을 바로 보아야한다. 어쭙잖은 낙관이나 어설픈 희망은 생존에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스톡데일 패러독스라는 말이 있다. 베트남 전쟁 당시 하노이 힐튼 포로수용소에 수감됐다가 갓은 고문을 견디고 8년 만에 풀려난 미 해군 장성 제임스 스톡데일 장군의 이름에서 따온 말이다. 그의 말에 따르면 예상과는 달리 낙관주의자들은 대부분 수용소 생활을 견디지 못했다. “다가오는 크리스마스에는...” “이번 부활절에는...” 라는 근거없는 희망이 절망으로 바뀌면서 상심이 깊어져 앓다가 죽었다는 것이다. 살아남은 사람은 비관론자도 아니다. “이번 크리스마스에도 못나갈 수 있다”며 체념만 한 것이 아니라 현실을 인정하고 차분히 대비한 사람들이었다. 현실론자인 셈이다.

설비건설인들은 하루하루가 버겁다. 썩은 동아

줄이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다. 이럴 때일수록 냉정해야 한다.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것이라는 맹목적인 희망은 내려놓아야 한다. 현실에 바탕을 두지 않은 기대나 희망은 생명을 재촉하는 독일 뿐이다. 요즘 경기지표가 회복지표를 보이는 것을 보며 앞으로는 나아지겠지라는 과거지향형 사고가 빠져나오지 않도록 마음을 다져야 한다. 고객의 선택을 받지 못한 이유는 무엇인지, 내부 시스템은 생존에 적합한지에 대해 꼼꼼히 챙겨야 한다. 무엇보다 새로운 트렌드를 놓치고 있거나 않은지에 대해서도 점점해야 한다.

춘래불사춘이라고 한탄만 할 것이 아니라 주위를 둘러보고 봄의 의미를 새겨야 한다. 개구리가 겨울잠을 깨고 나무가 싹을 틔우는 것은 단순히 때가 됐기 때문이 아니다. 겨우내 준비했기에 가능한 기적이다. 식물은 겨우내 얼지 않기 위해 체액의 수분 양을 줄이고 포도당 농도를 증가시켜 어는점을 낮췄다. 동물도 마찬가지다. 잠 잘 곳을 준비하고 체질을 바꾸고 지방을 비축한다. 에너지 소비를 줄이기 위해 심박과 호흡도 줄였다. 겨울은 쉬는 시간이 아니라 치열한 삶의 연장선이다. 현실을 불평하거나 도망치지도 않았다. 겸허히 받아들이고 순응한 것이다. 봄은 준비하는 자만이 누릴 수 있는 축복이다. 🌈